



since 2005  
**AVIV MINISTRY**  
For victims of addictions and abuse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이니라» (누가복음 19:10)

## 아비브 미니스트리 – 20년간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며

### 도브 비카스의 소감

설립자 겸 대표

올해 저희 사역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네 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저희 팀은 **열 명의 스태프와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매일 진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저희는 텔아비브의 한 공원, 중독자들이 모이는 곳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놓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단순했고, 경험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2005년 9월 뉴스레터에서 저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희는 텔아비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방치된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인들, 유대인들, 아랍인들—소망이 없고, 부서진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희에게 이 작은 시작이 여러 프로젝트와 직원 팀을 갖춘 온전한 사역으로 성장하여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단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신실**.

-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시간 함께 서 주신 **친구들과 후원자들의 신실함**.
- 주님의 밭에서 지치지 않고 섬겨 온 **스태프의 신실함**.
-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고 어려운 여러 계절을 지나도록 저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 주신 신실하심**. 불확실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 아비브 미니스트리 연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 이 사십 년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신명기 8:2)

**2005** – 거리 아웃리치가 시작되며, 일주일에 두 번, 중독자들과 노숙인들 가운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06** – 실내 성경공부가 시작되고, 거리 아웃리치는 계속되었습니다.

**2009** – 사역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섬기도록 확장되었으며, 돌봄과 존엄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2012 – 아비브 센터** 급식소가 문을 열었으며, 여러 해에 걸쳐 운영 시간과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매달 최대 2,000 끼의 식사를 제공하며, 매년 30-40 명의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벗어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3 – 재활센터**가 문을 열어, 거리에서 벗어나 중독을 극복하는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집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센터는 **20-25 명의 남성들**에게 안전한 주거, 좋은 식사, 매일의 성경공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어느 시점이든 7-9 명의 입소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0 – 여성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위기 상황에 있는 50 명 이상의 여성들이** 보호, 주거, 식사, 상담,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격려를 받아 왔습니다.



**2022 –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쳐 온 난민들의 물결을 돋기 시작했습니다.

**2023 –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과 함께, 사역은 **아쉬케론** 지역의 가족들을 위해 대규모 폭격 기간과 그 이후 일상 복귀 과정 전반에 걸쳐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동원했습니다.

**2024 – 사역은 더 폭넓은 인도적 지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취약 계층과 새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돋고 있습니다.

**2025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매달 100 개의 식량 꾸러미를 제공하고, 알리야와 새로운 이스라엘 거주자들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화된 모든 삶을 위해 저희가 함께 계속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 된 도브 & 올가 비카스,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드림